우암학원 창학 72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Since 1995
PARAVIEW
다르게 짓고 바르게 짓는
삼일건설 · 삼일파라뷰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88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0월 25일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끝났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후, '26지구 수능시험장'인 광주 남구 설월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kwangju.co.kr

# 수능, 국어 쉽고 수학 까다로웠다

## 상위권, 수학·영어 비중 커져
## 정답 29일·성적 12월 9일 통지

17일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불수능' '용암 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는 최상위권 기준으로 '다소 쉬워진 것'으로 평가됐다. 〈관련 기사 6·7면〉

올해 고3이 고교 3년을 모두 코로나19 시기에 보낸 탓에 수업결손 등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체감 난이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교육청 수능문항 분석팀은 이날 "최상위권에서 국어영역 변별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수학, 영어, 탐구 등 다른 영역의 비중이 다소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연 계열 상위권 대학에는 과학탐구뿐만 아니라 수학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국어영역은 수험생들이 전년도 수능에 비해 다소 쉽게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난도는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고,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작년 수능에 비해 고난도 문항이 줄어 최상위권 변별력은 떨어지고 중상위권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부터 도입된 국어 영역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평이하게 출제됐다. 선택과목 유·불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한 기조가 작년에 이어 유지됐다.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1등급 비율 6.25%)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됐다.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됐던 9월(1등급 비율 15.97%) 모의평가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문의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어휘 수준이 높아 체감난도가 지난 수능과 비슷했을 것으로 진단됐다.

시교육청 수능문항 분석팀은 "절대평가임에도 변별력을 갖춘 영어 영역이 수시전형 수능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영향을 줄 변수"라고 꼽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윤희태 서울 영동일고 교사는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쉽고, 올해 9월 모의평가 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 집단의 수준·구성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이라며 "(9월 모의평가의 난도보다는) 작년 수능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수학영역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나 시간관리가 성패 관건으로 꼽혔다.

다수 문항이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매우 유사하게 배치됐지만 도형의 해석, 함수의 유추 등 공통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도 "초고난도 문항은 줄어 최상위권 변별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평가됐으나 쉬운 수준은 아니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학 점수가 정시전형 당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입시학원가에서는 중난도 문항이 늘어 중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은 갖췄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69명 가운데 61명이 시험을 치렀고 8명이 결시했다. 전남에서는 확진 수험생 42명이 모두 시험을 봤다.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21일까지 5일간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29일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성적은 다음달 9일 통지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 티베리야스 호수에서 그리스도와 제자들

## 조르주 루오 지상展

전남도립미술관 2023년 1월까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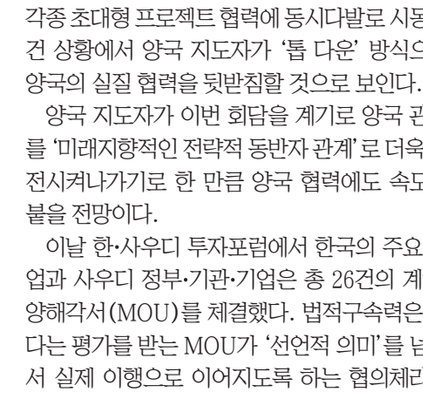
### '기독교적인 풍경'

루오는 1930년대 이후 깊은 신앙심에 기반한 종교적인 풍경화를 그렸다. '기독교적인 풍경'은 루오가 말년에 그린 풍경화로 신약성서에 나오는 티베리야스 호수에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화면의 구도는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장대하게 울려 퍼졌고, 수 개의 원과 반원의 포름이 화면 중심부에 위치해 특유의 안정감을 나타내고 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몇 번이나 덧발랐으며 황색이나 녹색 등 밝은 색을 사용했다. 계절이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빛이 아닌 자연을 초월한 정신계의 빛을 담아냈다.

〈장미라·전남도립미술관 학예사〉



'기독교적인 풍경', 1952년, 유채, 95 x 65 cm, 퐁피두 센터 소장

# 100조원·26개 프로젝트 '중동 특수'

##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 한국 기업들과 MOU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는 17일 회담을 열고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했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100조원대 안팎으로 추산되는 26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로 추진한다.

이날 거론된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사우디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 간 위원회로 양국 지도자가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총괄·조정할 예정이다. 일종의 '직통 라인'인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한-사우디가 최고위 수준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최대 수십조 원에 이를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 협력에 동시다발로 시동을 건 상황에서 양국 지도자가 '톱 다운' 방식으로 양국의 실질 협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지도자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만큼 양국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은 총 26건의 계약·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적구속력은 없다는 평가를 받는 MOU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협의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전남 가뭄 심각 … 정부 급수 지원 ▶2면
북스 - 우리 미술 이야기·사랑의 조건 ▶14·15면
'캡틴 조로' 손흥민 합류 단단한 원팀 됐다 ▶18면

2weeks
고함량 고강도 레티놀이 눈가 및 필자 주름 등을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 퍼 레 티 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엠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